

2019 K-Story & Comics in Japan

참가작품 선정평가 종합의견

『2019 K-Story & Comics in Japan』 사업은 국내 우수 스토리 및 만화 콘텐츠의 해외 투자 활성화와 해외 경쟁력 기반 마련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임.

올해 사업에는 총 52편의 다양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각 콘텐츠 분야의 해외 유통/배급/투자 전문가 5인의 서면평가를 통해 작품을 선정함.

평가위원장을 비롯한 평가위원 5인은 작품성 및 사업성, 해외 진출계획, 작품의 글로벌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평가된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최종 10편의 작품을 최종 선정함.

평가위원 전원은 ‘최종 선정된 콘텐츠의 수준이 높기에 일본을 비롯한 해외 무대에서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밝힘.

더불어,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은 콘텐츠들 중에서도 국내 및 해외에서의 가능성 높은 작품이 매우 많았다.’는 평가를 이어가며, ‘향후 발전을 거듭하여 좋은 콘텐츠로 성과를 이루길 기원한다.’는 의견을 덧붙임.